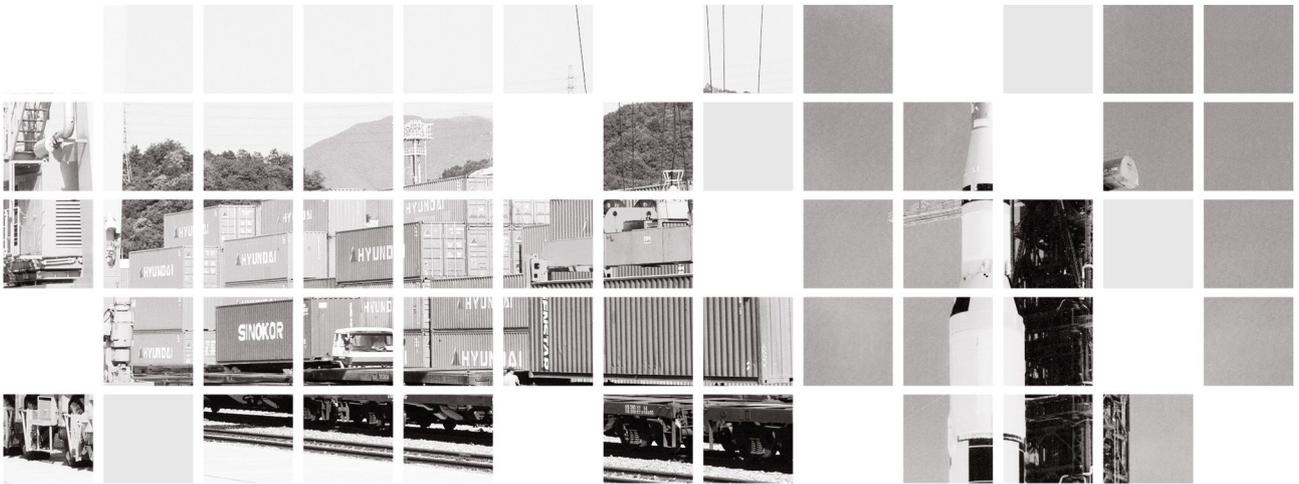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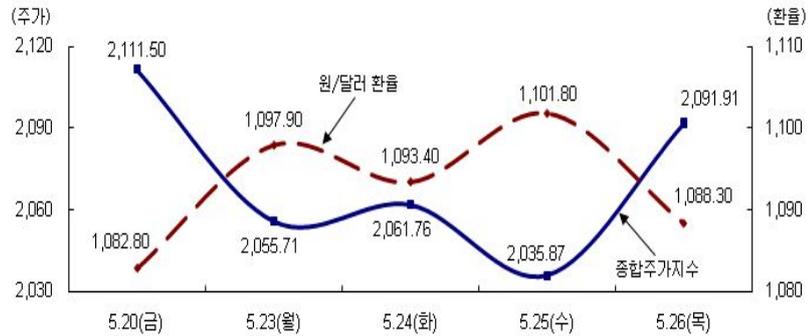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0~5.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홍 순 직 수석 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 이 해 정 선임 연구원 (2072-6222,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시사점

1.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일정

(일정)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0년 8월 이후 9개월만이며, 최근 1년 사이에 3차례나 이뤄졌고 방중 일정이 장기간·장거리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방중 기간의 산업 시찰은 과거에 비해 첨단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자동차 태양전지·LCD 등 북한이 나선 특구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분야의 업체들을 방문했다.

2. 방중의 배경과 주요 합의 내용

(배경과 의미)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해결, 후계구도 안착 등의 정치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성공적인 창치투 개발 계획 이행과 나선 특구를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양국의 이해가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에 맞추어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매개로 남북정상 간에 6자회담 복귀 등의 관심사를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후계체제 지지 촉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이 대폭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의 중재 노력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6자회담 복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의 창치투 개발 계획 협조와 개혁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 지원과 중국의 투자 확대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영향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개혁 개방 등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정치 경제적인 대중 의존도 심화와 남북관계 교착 지속 등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설득과 경제 지원 약속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중 밀착과 정부의 천안함 사태 사과라는 원칙 고수 입장으로 남북관계 진전에는 한계가 우려된다. 경제적으로는 황금평과 나선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이 확대되어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중교역이 증가하면 남북교역이 감소·정체하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던 추이를 볼 때,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따른 대남 의존도 약화는 남북경협의 레버리지를 약화시켜 5.24 제재조치의 실효성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북중경협의 확대로 자원과 인력 등 북한의 경제 역량이 북중경협에 집중되면서 남북경협의 역할과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이번 방중 합의 결과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천안함 사태 해결을 전제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출구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입구론적' 시각의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고위급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경제교류·협력을 분리 접근하는 정경분리 원칙의 도입과 함께, 남북경협 위축 예방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1.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일정

○ (일정)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0년 8월 이후 9개월만이며, 최근 1년 사이에 3차례나 이뤄졌고 방중 일정이 장기간·장거리라는 점이 특징

- 방중 경로 : 동북 3성과 양저우, 난징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귀로에는 단둥 경로를 거침
- 2010년 8월 방중 때의 귀국 행로를 역주행하면서 동북3성을 연속 방문했을 뿐 아니라, 양저우의 남부지방도 동시 방문했다는 점에서 관심 주목
- 역대 방중 기간은 통상 3~5일이었으나, 이번 방중은 2006년 1월의 최장 방중 기간 8박 9일과 비슷한 7박 8일 소요

○ (수행자) 후계자 김정은을 제외한 김 위원장의 단독 방문으로 보이며, 장성택을 비롯한 공식 수행원 70여명 외에도 비공식 인원이 동행

- 경제 관료 대거 참가 :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 등 투자 유치단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추정
- 외교 담당 : 김양건 통전부장과 강석주, 김계관 등의 북핵 담당자도 동행
- 경제기술전문가 : 경제관료인 태종수 당 비서와 북한 최고의 군수 전문가 박도춘 국방위원회 위원, 최태복 과학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포함
-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방중 때에도 동행하여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던 김옥 과장이 이번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 단독 방문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김 부위원장은 이미 권력 2인자와 후계자 지위를 갖고 있으며, 권력의 1~2 인자가 동시에 권좌를 비우는 일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행하지 않은 듯
- 또한, 김 위원장의 건강 호전과 경제난 지속 상황 속에서 3대 세습체제의 속도 조절함으로써 오히려 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었을 것임

○ (산업 시찰은 첨단 분야에 집중) 과거에 비해 태양전지·LCD·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중국판 실리콘 밸리인 중관촌을 방문

- 자동차·태양전지·LCD : 지난 21일 창춘에서 중국 2위 자동차업체인 이치자동차, 23일 양저우에서는 세계 1위 태양전지 업체인 징아오탈양과학기술, 24일 난징에서 중국 최대 액정표시장치(LCD) 업체인 판다전자를 시찰
· 세 업종 모두 북한이 나선 특구에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라는 점이 특징적
- 중관촌 : 김 위원장은 2004년 4월 방중 때에도 중관촌을 둘러본 바 있어, 정보통신 및 서비스공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
- 대형 할인마트 방문 : 23일 오후에는 대형 할인마트를 깜짝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면서 쌀과 식용유 등 식품류에 큰 관심을 보인 것도 특징적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사례와 후속 조치 >

일시	행선지	후속 조치
2000. 5.29 ~31	베이징	- 남북정상회담 (2000. 6) - 현대아산과 경협합의서 체결 (2000. 8) - 신년사에서 '신사고' 제시 (2001. 1)
2001. 1.15 ~20	베이징, 상하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2002. 7) -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 제정 (2002. 9~11)
2004. 4.19 ~21	베이징, 텐진	- 대외경제협력추진촉 내각직속으로 격상 (2004. 5) -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 (2004. 7)
2006. 1.10 ~18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 개성, 신의주, 금강산, 나선 개방 확대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치 추진
2010. 5. 3~7	다롄, 텐진, 베이징	- 북중 경협 강화, 경제 특구 개발 가속화 - 나진항 개발, 황금평 위화도 개발
2010. 8.26 ~30	동북 3성	- 북중 경협 및 외자유치 강화, 후계체제 공식화 - 우리농축시설 공개, 금강산 외국인관광 허용
2011. 5.20 ~27	동북 3성, 양저우, 난징, 베이징	- 북중 경협 강화 예상 - 황금평과 나선특구 개발 가속화 예상 - 북한식 개혁·개방 추진 가능성

2. 방중의 배경과 주요 합의 내용

○ (배경과 의미) 중국은 나선 특구를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방중 배경** :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난 해결,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 대비, 후계구도 안착 등의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정치적** : 북핵 문제 해결 지연과 남북경색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 속에서, 안정적인 후계체제 정착을 위한 중국의 지원이 절대 필요
- **경제적** : 심각한 경제난 해결은 물론, 2012년의 김 주석 탄생 100주년과 김 위원장 생일 70주년을 맞아 인민들에게 제시할 가시적인 경제비전과 선물 필요
-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인 동시에 G2로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북중 정상간 입장 조율이 필요

- **방중 의미** :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추어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매개로 남북정상 간에 6자회담 복귀 논의 등 상호 관심사를 전달

- **시기적** :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50주년(7. 11)과 나선~훈춘간 도로 보수공사 및 황금평 개발 착공이 예정된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 우호 협력을 재확인하고 강화하기에 적합
- **의제면** : 북한은 후계체제와 북중 경협 및 지원 확대 대가를 얻는 대신, 중국은 성공적인 창지투 개발과 동해 출로권 확보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 존재

○ (주요 합의 내용)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인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의 대폭 확대가 합의된 것으로 보임

- **정치적 측면** : 중국의 대북 6자회담 복귀 설득과 후계체제에 대한 진전된 지지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공감과 협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6자회담** : 중국은 북한에게 남북 비핵화 회담에 호응할 것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중국의 UEP의 안보리 논의 거부에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비핵화 입장을 설명하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존재
- **남북 관계** :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의제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뤄졌더라도 중국의 우려 표명과 재발 방지 요구 수준에서 그쳤을 전망
- **후계 체제** : 중국은 이미 새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 방중에서는 보다 진전된 후계체제 지지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측면** : 중국은 북한에게 창지투 개발 계획의 협조와 개혁·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북한은 식량 지원과 중국의 투자 확대를 요청
 - **창지투 개발** : 중국은 나선 특구 개발을 통한 동해 진출 허용을 요구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것임
 - **북중 경협 확대** : 김 위원장이 창지투 지역을 연속 방문함으로써 북중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나진항과 황금평 개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투자 확대 방안이 합의되었을 것으로 보임
 - **개혁·개방** :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정상회담(5. 22)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에 대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초청했다”며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경험을 권유한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은 중국 개방의 상징인 상하이 등 남부의 경제발전상을 시찰한 후 중국에 개방 요구에 화답하면서 ‘북한식 남순강화’ 구상 논의도 가능

※ 남순강화(南巡講話) : 덩소핑이 1992년초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시찰한 후, 민영화 추진, 400여개의 규제완화 등 천안문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개혁·개방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임

- **경제 지원** : 중국 측이 약 1억 달러 규모의 경협 지원과 대대적인 식량 및 비료 원조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음

3.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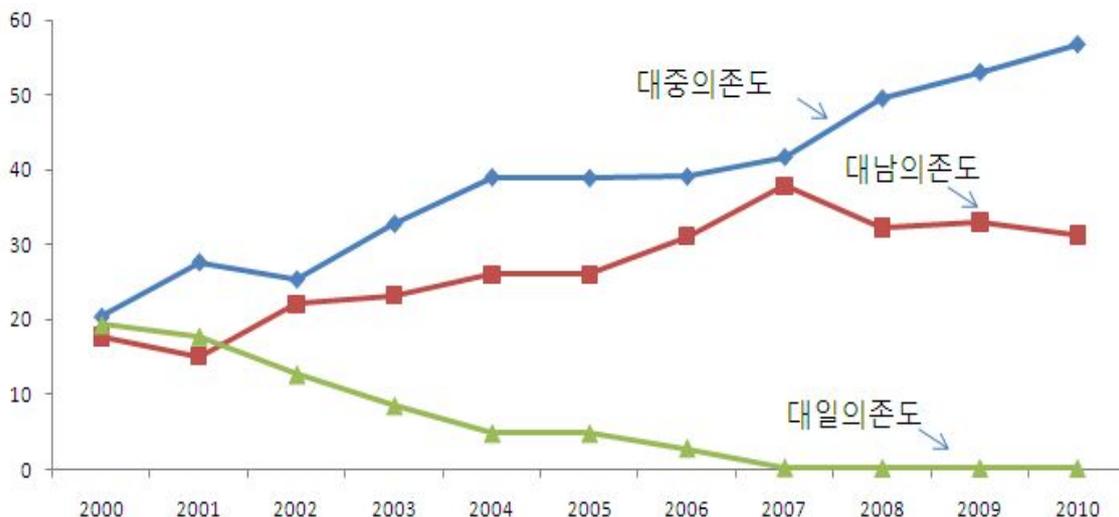
- (개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개혁·개방 등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대중 의존도 심화와 남북관계 교착 지속 등은 우려되는 상황
- (북핵 문제 진전) 북한은 중국의 설득과 경제 지원 약속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중국의 중재 노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
 - 북한은 중국의 설득과 경제 원조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다만 IAEA 사찰단을 허용하는 대신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 보장 여건 조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북중 밀착과 경협 확대는 대북 압박 정책의 실효성에 비판을 초래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내부에도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리 접근 추진과 '전략적 인내'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또한 킹 특사의 방북과 식량평가단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식량 지원 예정
- (남북 관계 교착) 6자회담 진전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북중 밀착과 정부의 강경 원칙 입장으로 남북관계 진전에는 한계
 -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경 원칙 고수로 인해, 남북 관계 진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6자회담의 진전, 특히 남북 비핵화 회담의 추진은 단절된 남북 당국간 회담의 재개라는 의미에서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남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한도 북한의 사과 전제를 고수하는 한 남북간 긴장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
- (북중 경협 확대) 황금평과 나선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이 확대되어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도 가속화될 전망

- **접경지역 중심의 경협 확대(나선, 황금평 착공식 등)** :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및 특구 개발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 중국은 2020년까지 압록강 유역의 연해경제벨트와 동변도 철도 건설 계획과 함께 두만강 접경지역의 창지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도 나선특별시 승격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합의, 김 위원장의 북중 접경 지역 방문 등 신의주·나선의 기존 특구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특히 북중은 '북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 요강'을 통해 이 지역을 종합산업벨트로 조성하는 계획에 있어, 이번 방중을 계기로 나선과 황금평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반면,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와 경험을 북한경제 운영과 외자유치 법·제도 재정비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보다 구체화·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북한식 '남순강화'와 전향적인 외자 유치 특혜 조치 발표 기대)

- **대중 의존도 심화** : 현재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며, 이번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2년 이후 북중 교역은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34.7억 달러로 대중 의존도는 56.7%를 차지하였으며,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전체의 82.6% 차지
 - 북한 무역의 한·중·일 의존도는 2000년에 각각 20% 정도를 나타냈지만, 2010년에는 대중 의존도가 다른 두 국가의 의존도 합보다 더 큼

< 북한의 對한·중·일 교역 비율 추이 >

(단위 : %)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호 및 한국무역협회 KITA. NET.

- 중국의 대북 투자도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의 90%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 112만 달러에서 2009년 586만 달러로 증가함으로써 하여를 기록함으로써, 북한의 제 1의 투자국으로 부상¹⁾

< 북한의 외자 도입액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DI(해외→북한)	-15	158	40	50	-105	67	44	2
FDI(중국→북한)	1.5	1.12	14.13	6.50	11.06	18.40	41.23	5.86

자료 : FDI(해외→북한)는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각호, FDI(중국→북한)는 중국 상무부, 2009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2010.12) 자료 참고

주 : 본 통계는 대북 투자 실행액 기준이며 투자 합의액은 고려하지 않음.

○ (남북경협의 지렛대 역할 약화) 북중 교역이 증가하면 남북 교역이 감소하는 역 상관관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남북경협의 레버리지를 약화시켜 5. 24 조치의 실효성도 약화시킬 우려 존재

- 2000년 이후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은 거의 역 상관관계가 존재 :

- 남북 교역이 악화될 경우 북중 교역은 늘어났으며, 반대로 남북 교역이 늘어나면 북중 교역은 둔화 혹은 감소

<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 증가율 추이 비교 >

(단위 : %)



1)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며, 이에 대한 평가도 다양. 2009년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2009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2010.12) 참고

-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남 의존도는 낮아짐에 따라,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
 -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2007년 41.7%→2009년 52.6%→2010년 56.7%로 증가한 반면, 대남 의존도는 2007년 37.9%→2009년 33.0%→2010년 31.3%로 감소
 - 5.24 조치로 인한 북한의 현금 감소는 약 2.5~3억 달러이나, 남한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
 - 5.24 조치 이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은 각각 93.2%, 60.5% 감소했으며, 2011년 들어서는 356만 달러에 불과하여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

<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총교역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소계	
09.6~10.3 (비중, %)	1,668.9 (100.0)	216.0 (13.0)	382.6 (22.9)	1,037.1 (62.1)	1,635.7 (98.0)	33.2 (2.0)
10.6~11.3 (비중, %)	1,446.9 (100.0)	14.6 (1.0)	151.2 (10.4)	1,267.2 (87.6)	1,433.1 (99.0)	13.8 (1.0)
증가율	-13.3	-93.2	-60.5	22.2	-12.4	-58.5

- (남북경협 위축) 북중 경협의 확대로 자원과 인력 등 북한의 경제 역량이 북중 경협에 집중되면서 남북경협의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 **북한의 자원 및 인력의 대중 유출 심화** : 자원과 인력 등 북한의 경제 역량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에만 집중됨으로써, 남북경협의 역할과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이는 남북경협의 지렛대와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동시에, 향후에 한반도의 통일경제 기반 구축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 (시사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

- 기회 요인 : 6자회담 및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설 경우, 남북 간에도 당국간 회담 재개를 통한 대화 국면으로의 회복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 경제적으로도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 및 대외 경협 관련 법·제도 환경 개선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 증대
- 위협 요인 :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
 - 북중 관계 밀착과 경협 확대로 남한의 역할과 중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한의 주도적 위치는 더욱 위축될 것임
 - 더욱이 집권 후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면, 남한은 협상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크게 손상되어 당국간 남북대화가 지체될 전망

○ (정책 추진 방안)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한이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

- 입구론적 시각의 유연한 대북 정책 추진
 -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과가 없으면 출구가 없다’는 출구론적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당국간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구론적’ 시각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
- 6자회담 이니셔티브 확보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 확보
 - 북핵 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분리 접근법과 함께,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하여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강화
 - 중국의 對한반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건의 연계 접근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신폭을 제한할 수 있음

- **고위급 대화 추진을 통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복원**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논의의 주도권 확보 필요
 -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중국의 중재에 의한 남북대화 추진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복원에 의한 주도적 관계 설정 필요

- **(경제적 대응 방안) 북한 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 심화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정경분리 원칙 도입과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

-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경제교류·협력을 분리 접근하는 정경분리원칙 도입 필요**
 -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요구와는 별개로,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단절된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 사업은 부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소한의 민간 경협과 교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경분리 원칙 필요

-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 개방을 간접 지원하고 新 남북경협 사업 추진**
 - 다자틀 속에서 북한 경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신 남북경협 사업 추진과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모색
 - 예컨대, 나선항과 청진항 등지의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에 한중 혹은 한러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러를 통한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

-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탈피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필요**
 - 나선특구와 황금평 개발을 통한 북한 경제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 심화와 남북경협 위축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
 - 특히 개성공단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한 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여력이 북중 경협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병행 개발·발전을 유도해야 함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이혜정 선임연구위원 (2072-6222, hjlee@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5월20일	5월2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15	3.06	-0.09%p
	엔/달러	92.93	88.43	81.19	81.72	81.97	0.25 ¥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322	1.4084	-0.0238\$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512	12,403	-109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607	9,562	-4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2	3.61	-0.01%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82.8	1,088.3	5.5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111.5	2,091.9	-19.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5월20일	5월2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9.46	100.18	0.72\$
	Dubai	78.06	73.14	88.80	106.21	108.65	2.44\$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1.56	343.33	1.7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